



몽골 가나안복지센터전경을 뒤로한 몽골선교사 대전교구 이준화 신부님

“나의 사제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병자성사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병자성사 요청이 오면 며칠 전부터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의사였다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도의 힘과 더불어 실질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에 병자성사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언젠가 간이 완전히 망가져 죽음을 앞둔 한 경찰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자 오히려 경찰이 ‘신부님, 제가 사는 동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요. 괜찮아요.’라고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누운 사람을 일으킬 수도, 병자 치유의 능력도 없기에 막연하게나마 오래전부터 병원을 세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새해 몽골 울란바토르의 빈민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병원을 열기 위해 병원건물을 건립 중인 이준화 신부님은 당신께서 병원을 세우려 했던 처음의 소망과 의지를 말씀해 주셨다. 대전교구 이준화 신부님은 10년의 긴 시간 동안 몽골이라는 척박한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셨다. 빈민 아동과 어려운 형편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정규수업 및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을 운영하는 한편, 가

정 형편이 어려워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물이 귀하고 상수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몽골에서 샘물을 파서 물을 공급해주고 있다.

또한 농업의 기술을 전수하며 직접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 밀과 감자를 재배하고, 목축사업을 펼쳐 수입을 모두 몽골의 빈민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고 계셨다. 또한 내년 가을에 개원할 지역 빈민들을 위한 무료병원이라는 오랜 꿈의 실현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셨다. 지난 9월 20일부터 5일 동안 이준화 신부님과 동행하며 선교지 몽골에서의 분주한 신부님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몽골에서의 신부님의 땀과 열정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가깝고도 먼 유목민의 나라, 몽골에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다

이 신부님이 몽골 땅에 발을 들여놓으신 지는 10년이 되어간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았다. 1992년에 처음으로 로마교황청에서 몽골에 선교사들을 파견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한국주재 교황대사이셨던 이반 대주교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몽골선교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셨다고 한다.

주교회의에서 대전교구가 몽골선교를 맡을 것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대전교구장 주교님께서는 대전교구 사제들 중에서 몽골선교에 나설 지원자를 찾고 있었다. 이준화 신부님은 처음 주교님을 통해 몽골선교에 대한 제안을 듣는 순간 몽골선교라는 꿈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으며 그 꿈이 소명으로 다가와 지원 결정을 하게 되셨다고 한다. 이 신부님은 1996년도에 몽골선교행을 앞두고 홀로 답사를 떠나셨고 몽

골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몽골의 현실 상황과 몽골인들의 삶을 체험하고 몽골선교에의 확신을 얻어 1997년 2월 28일 몽골에 입성하였다.

몽골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작은 소망들에 응답하다

이 신부님은 몽골에서의 선교활동에 있어 먼저 지역 주민들과 숨쉬고, 그들의 빈곤한 삶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소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빈민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국민소득이 천 달러도 되지 않는 이 나라, 아픈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이 처한 절대빈곤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온 우리의 사명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와서 처음 시작한 일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빈민 가정의 아이들에게 정규교육 및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는 가나안복지센터(Ganaan Social Welfare Center) 설립이라고 한다.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약 50여 명의 지역 빈곤 학생들이 센터를 찾아 현지 선생님들로부터 정규교육 및 직업교육을 무료로 받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뛰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 그리고 잘 씻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샤워시설까지 마련하였다.

‘몽골에서 빈곤과 침체한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은 미래의 일꾼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신념과 함께 빈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좋은 시설에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졌기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한다.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한 가나안복



몽골 울란바토르 전경



가나안복지센터 수업전경



쌈을 파는 작업

지센터는 내년이면 설립 10주년을 맞는다.

몽골은 물이 귀하고 상수도 시설이 열악하다. 수도만 열면 물이 쿵쿵 나와 언제나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를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땅 몽골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된다. 이곳에서 이 신부님은 ‘쌈을 파는’ 신부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신부님께서 물 얻기 위한 쌈을 파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며 엄청난 규모의 장비와 차량, 인부들의 며칠간의 노동이 필요한 대형작업이고 비용과 위험도 크게 따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곳에서도 쉽게 물을 구하기 위한 작업을 시행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운 좋게도 신부님과 동행 첫날, 울란바토르 시 외곽의 한 남자감옥소의 요청에 의해 신부님이 감옥소에 쌈을 파는 길에 동행할 수 있었다. 신부님께서 지형을 보고 직접 물줄기를 찾았고 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이튿날 쌈에 물이 솟았다. 이제부터 감옥소의 수인들이 맘껏 몸을 씻을 수도 마실 수도 있게 되었다.

“나에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은 물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쌈을 파러 갔을 때 며칠 동안의 힘겨운 작업 뒤에 물이 솟는 순간입니다. 그 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니까요.”라고 그 순간들을 회상하시며 말씀하셨다.

그 밖에도 이 신부님은 울란바토르 외곽 지역의 너른 광야를 개척하여 밀과 감자 농사를 짓는다. 유목민의 나라에서 정착 생활을 근본으로 하는 농업은 많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농사를 위해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좋은 종자를 구하고 농사 기술을 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한

다고 말씀하셨다. 한국보다 날씨가 빨리 추워지기 때문에 9월 즈음이 수확철이라고 한다. 현재는 밀농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땅도 아직 적응을 못한 상태라서 수확량이 그다지 좋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수확량이 좋아지면 그 수입을 통해 몽골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시다고 한다.

지금 설립하고 있는 마리안느 병원은...

가나안복지센터 왼편에 건립되고 있는 마리안느 병원은 한국에 계신 마리안느 자매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빈민들에게 더욱 취약한 의료서비스 현실을 보면서 가나안복지센터 부지에 병원설립을 계획하고 있던 중, 서울교구 교우 마리안느 자매님께서 25년 동안 노점 장사로 모은 돈 6천만 원을 몽골선교사업에 기증하겠다는 지향으로 보내주셨고, 이에 본격적인 병원 건립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정성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병원의 이름을 ‘마리안느 병원’으로 짓게 되었다.

치과를 포함하여 150평, 2층 규모의 기초 진료를 위한 작은 병원이지만, X-ray실과 임상병리실, 약국 등을 갖추어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치과 진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치과 진료는 그들에게 큰 기대와 기쁨이 될 것이다.

병원 의료진은 현지인으로 고용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마련하여 때마다 한국에서 찾아오는 훌륭한 의료진이 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부님의 계획이다. 현재



마리안느 병원 건립현장

2층 골조를 위한 철근작업 중이며 올해 시멘트 작업까지 마무리하여, 새해에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장비를 들여 2007년도 9월경에 개원할 예정이다.

신부님은 완성되어 가는 병원을 지켜보시며 “새해 2007년도는 정말로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몽골선교를 위해 몽골 땅을 밟은 지 10년째 되는 해인 동시에, 학교사업을 위한 가나안복지센터 10주년, 그리고 고대하던 무료병원 오픈까지 새해에는 지역 주민들과 한국의 많은 후원가족들을 초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쁨을 표현하셨다.

몽골, 그 잠재력의 땅 그리고 몽골교회

몽골에서의 가톨릭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이다. 몽골선교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600여 명 만이 영성을 받은 신자이고 나라 전체에 주교좌 성당을 포함하여 성당 3곳과 몇몇 공소들이 전부라고 한다. 공산주의를 경험한 나라여서 종교에 냉소적이고 미신도 강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으며 몽골선교를 위해 19개국에서 온 신부님과 수녀님을 포함한 60여 명의 선교사들의 열심인 활동과 희생으로 몽골사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신부님께서는 “처음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몽골 교회가 30년 뒤에는 다른 나라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20년 동안 그 변화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한국 신자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부탁하셨다.



가나안복지센터 내 성당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신부님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과 나눔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신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다.

“마태오 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 주었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라고 하셨으며, 불교에서의 회심곡에도 『배고픈 이 밥을 주어 아사구제 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월천공덕 하였는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한국의 신자들이 옷을 보내주었기에 여기에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샘을 팔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필요한 이들에게 물을 줄 수 있었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병원을 지음으로써 아픈 내 이웃들을 돌보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커다란 은총과 또한 한국 교회 신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는 한국의 신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신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글 :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고정현**